

“쌀 값 안정,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서삼석 의원 등 민주농해수위 위원들 기자회견 “농림부 장관의 식량 안보 인식 위협” 맹비난 정부 정책 실패로 지역 영세 농협 경영난 가중

쌀 값 하락으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쌀 값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

2021년산 쌀 최소 10만t 이상 추가가격리 ▲정부·공공기관 등의 수당·상여금 쌀 쿠폰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쌀 상품권 발행 ▲이력 공유 자원 농산물 수입기업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에 대북 지원·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

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t이나 많은 37만t을 격리했음에도 가격 안정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80kg 당 산지 쌀값은 17만5천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천400원 대비 21%가 폭락, 45년 만에 최대 폭 하락을 기록했다.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곡매라는 방식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법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림부 장관이 매년 양곡 수급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은 엉뚱하게도 농협에 전가돼 있는 실정이다.

올해 7월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t으로 영세한 지역 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 별로는 전남이 10만t, 전북이 7만6천t으로 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3%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협마저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라며 “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해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쌀 값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을 촉구하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국힘, 닦아내는 ‘주호영 비대위’

내용 수습·전대 개편 ‘과제 산적’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마침내 9일 닦을 올리게 됐다.

집권 100일도 되지 않은 여당이 리더십 위기를 맞아 비대위로 전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출항하는 ‘주호영 호(號)’는 극심한 당 내용을 수습하고 여론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는 상황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현재 당 안팎의 상황은 그야말로 ‘비상’ 그 자체다.

당장 이준석 대표 측이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지

지에 나서면서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법정 공방의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 체제에 반대해온 내부 목소리도 다독여야 한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는 ‘가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어(對輿) 공세에 예봉을 가다듬고 있어서 이를 막아 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다.

특히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임무는 이번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이미 전대 개최 시기 등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칫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대 개최 시점과 맞물린 비대위 활동 기간을 두고 조기 전대를 염두에 둔 ‘2개월’과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최소 5개월 이상’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현재로서는 후자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활동 기간 문제는 ‘관리형’ 혹은 ‘혁신형’ 등 비대위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원 구성은 각계의 대표성과 원내·외를 골고루 안배하는 컨셉트가 유력한 가운데 친윤(親尹)계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전포인트다.

비대위원은 최대 14명까지 둘 수 있

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과거 비대위 때와 마찬가지로 9명 이내의 한 자릿수로 구성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원 구성은 지명 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늦어도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 전엔 당 수습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께서 상의하지 않았느냐”며 “비대위원들이 결정해서 상임전국위에 제출되는 즉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라도 결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주호영 비대위’가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빠지면 다면 조기 전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당이 수습되기 어렵게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향뉴스

여의도 클럽

주철현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9일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을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해양관광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 기반 조성 ▲해양관광 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지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수기자

김경만 ‘서구를 소통의 날’ 오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이 10일 광주 서구를 지역사무소에서 ‘서구를 시민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시민 소통의 날’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부,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서구 지역 소상공인 30여명이 참여하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소상공인 정책제언 및 간담회’로, 2부는 법률, 세무 등 전문가가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 이후부터는 주민 생활 애로와 정책 건의 등을 김 의원과 보좌진들이 함께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 소통의 날’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경만 서구를 사무소(062-372-0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 의원은 매일 1회 주민들의 생활 애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등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민생정치를 이어 갈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서동용 ‘광양 황금지구 학교 신설’ 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과 전남도교육청, 광양시교육지원청, 광양시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8일 광양시 골약동 주민센터에서 내년도 황금지구 초등학교 착공을 위한 협의회에 나섰다.

서 의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오는 10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변윤섭 전남교육청 행정과장은 “황금지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골약초에서 직선거리 1.5km에 불과해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황금지 전 세대가 입주할 경우 중학교 신설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요구 등을 수렴해 통과 가능성이 더 높은 초·중 통합학교 설립 계획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강정일 사무국장(전남도의원)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교육부가 제시한 직선거리 미치지 못해 심사 탈락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중학교는 황금지구 입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인 만큼 위치조정, 골약초 이설 등 다각적인 접근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황금지구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골약초 학부모, 황금지구 입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수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공사 기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골약초에 모뎀 교실을 설치해 학생을 수용해야 할 경우에도 통학에 따른 교통안전, 주민불편 등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수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홍삼성분 다량 함유	▶ 씹살한 맛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6년근 1등삼 25지	▶ 풋내가 없음
국산 홍삼만 사용	▶ 느끼한 맛 없음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 깔끔한 맛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